

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	2020. 4. 16. / (총 6매)			
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	팀 장 담 당 자	홍 승 령 김 민 주	전 화	044-202-3575 044-202-3576	
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	과 장 담 당 자	노 혜 원 이 승 훈	전 화	044-200-2293 044-200-2295	
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	팀 장 담 당 자	양 윤 석 임 예 슬	전 화	044-202-3155 044-202-3808	
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	팀 장 담 당 자	이 경 진 김 문 희	전 화	044-202-2023 044-202-2031	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- ▲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및 캠페인 추진계획, ▲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준비사항 등 -

- 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(국무총리)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·도와 함께 ▲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- ☐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관계부처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한편 오늘부터 초등학교 1~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급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 만큼, 관계기관에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·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

1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응원 캠페인 추진계획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 현장에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신 의료진의 사기·자부심 진작을 위해 의료진 응원 홍보 활동(캠페인)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○ ‘의료진 덕분에’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뜻을 담아 “덕분에 챌린지”라고 명명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.

* 덕분에 챌린지 공식 채널 : https://www.instagram.com/thanks_challenge/

- ‘존경’과 ‘자부심’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활용하여 캠페인의 상징 모양(이미지)을 만들었으며, 누구든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인스타그램에 해당 동작을 활용한 사진을 올림으로써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.

 <p>#의료진 덕분에 #감사합니다 #당신을 존경합니다</p>	 <p>#의료진 덕분에 #감사합니다 #자부심을 느낍니다</p>
(국민용) ‘존경’ 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	(의료진용) ‘자부심’ 의미의 수어 동작 활용 상징

- 추후 존경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배지로 제작하여 SNS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과 의료진에게 증정하고, 국민 참여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사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, 많은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캠페인에 동참하여 의료진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2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및 준비사항 등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(공동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, 이운성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장)를 4월 16일(목) 오전 11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시기, 이를 위해 미리 갖춰져야 할 조건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다.
-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소강 상태로 보일지라도,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급격히 완화되면 대규모 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.
-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하여 다가오는 일요일 ‘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’ 종료 시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.
-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(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)은 이날 회의에서 “현재 방역상황을 조망해보면, 확진 환자 수는 하루 30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”이라 강조하였다.
- 또한 “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방역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, 우려하시는 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”고 전했다.

- < 붙임 > 1. 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2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- < 홍보자료 별첨 > 1. 코로나19 예방수칙
2.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
3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4.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
5. <일반 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6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7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
8. 마스크 착용법
9.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
10.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

붙임1

코로나19 보도 준칙 (한국기자협회)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붙임2

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